

공동체은행

빈곤

2024

정기총회

# 총회 식순

- 1부 : 사전행사 (14:00~14:50)
- 2부 : 본회의
  - : 2023년 활동평가 (15:00~15:40)
  - : 2024년 활동계획 (15:40~16:50)
- 3부 : 뒷풀이 (17:00~22:00)

# 1부 : 사전행사

- 조합원 인사
- 공동체 소개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빈고활동상(BINGO AWARD) 시상식
- 공연 : 지각생

# 총회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20명

# 당신에게 2023년은?

- 이제 세상에 슬금슬금 나가는 한해였습니다.
-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중 개선이 필요함을 실감 중인데 게을러서 잘안됨
- 아프고 바쁘지만 목포여행으로 힐링이 되었던!!한해였어용 다음에도 목포백반을 먹고싶어요 헬
- 서울을 떠나 시작한 강릉살이, 지역에서의 삶에 녹아들기 위해 애쓰는 한 해였어요.
- 연말에 연달아 아팠는데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 희미하지만 앞으로 뭘하며 살고싶은지 조금 알게 된거 같아요^^
- 가게도 만들었고, 생각의 구조가 정리가 된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올해 너무 게으르네요.
- 일상이 감사한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공유할 소식이라면 올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지만 우리집이라는 공간을 갖게 되어 기대도 됩니다. 최근에 클레이 키건의 소설 [말겨진 소녀]를 읽고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내 안에 두려움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어요.
- 서울에서 홍성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리덕션 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면 도토리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상세히 전달하겠습니다. 빙고 조합원 여러분 모두 겨울 잘 나시고, 복 많이 받는 한해 되세요 🙏

# 2023년 공동체 소식

- 인권센터건축계를 통해 인권재단사람과 연대하였습니다. 빈고의 연대와 응원으로 인권센터로 무력무력(?) 지어졌습니다. 지난 12.15. ”진짜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 소속단체는 아니지만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 20주년 기념 아카이브팀에 결합했었습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로 가서 20년만에 이주노동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여러 생각이 교차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 별일없이 잘지내. .는 걸까나. .
-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한해였습니다. 지역에 발디딘다는 것이 새롭게, 다르게 이해되고 있어요. 물리적 공간에 대해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싶어요. 공동의 의지 실천 과정, 생활 속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아마 시의적절한 때를 봐서 이제 여기 만들어진 저희들 다른 단체 이름으로 신청해보은 좋겠다도 싶어요. ㅎ

# 2023년 기억나는 빈고

- 갈등탕비실 사랑해요
- 빈고폰에 안부 문자 보냈는데 답변이 돌아왔을때 반가웠어요
- 태안/목포 확대운영회의 건 조합원소풍
- 잔잔 따라 빈땅캠프를 다녀 왔어요. 깊이 있게 참여 하지 못해 잘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올해는 잔잔 따라 운영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잘 참여하겠습니다.
- 사실 제가 그렇게 활동한게 많이 없어서 소감을 남기기가 부끄럽네요~매월 소식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좋겠다. 부럽다.
- 참여가 없었지만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요.
- 참여한 게 없어 적을 말이 없습니다;;;
- 첫해라 알아가는 중입니다.
- 12월 운영위원회 목포 워크숍, 9월 천리포해수욕장 소풍(?) 회의와 토론을 점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정으로 출자를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공유해주시는 소식들은 잘 받고 있다.
- 참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제가 별 활동을 못해서...빈그림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ㅠㅠ
- 여름캠프 재밌었음다~
- 기차타고 처음으로 목포를! 찐행복♡
- 성실하지 못한 조합원이래서;;
- 열심히 놀러 다닌거 같네요.
- 올해 함께한 활동이 많지가 않네요 ㅠㅠ24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 2023년 빈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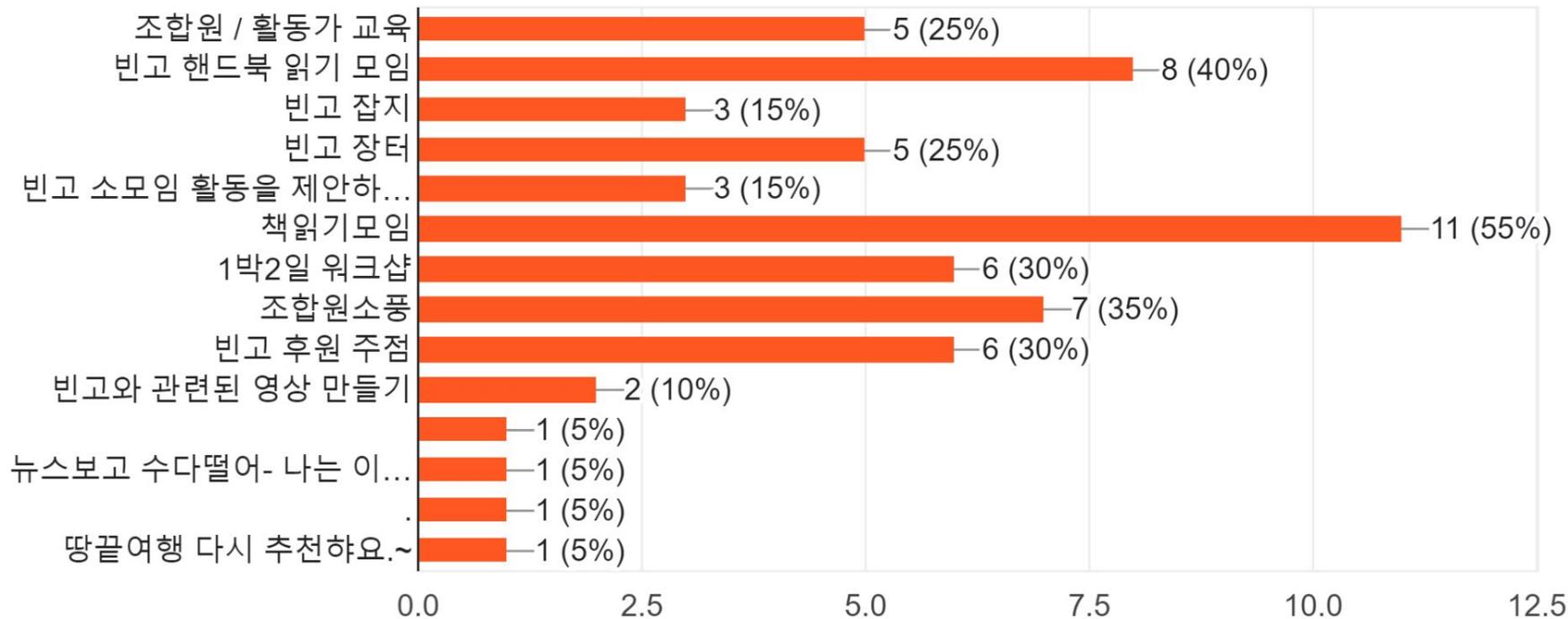
## 잘 한 것

- 꾸역꾸역이라도 회의 참여하고 뉴스레터 만든 것
- 캠프들 좋음, 모여서 놀면 좋음
- 근조기 만든 것
- 원들. 그저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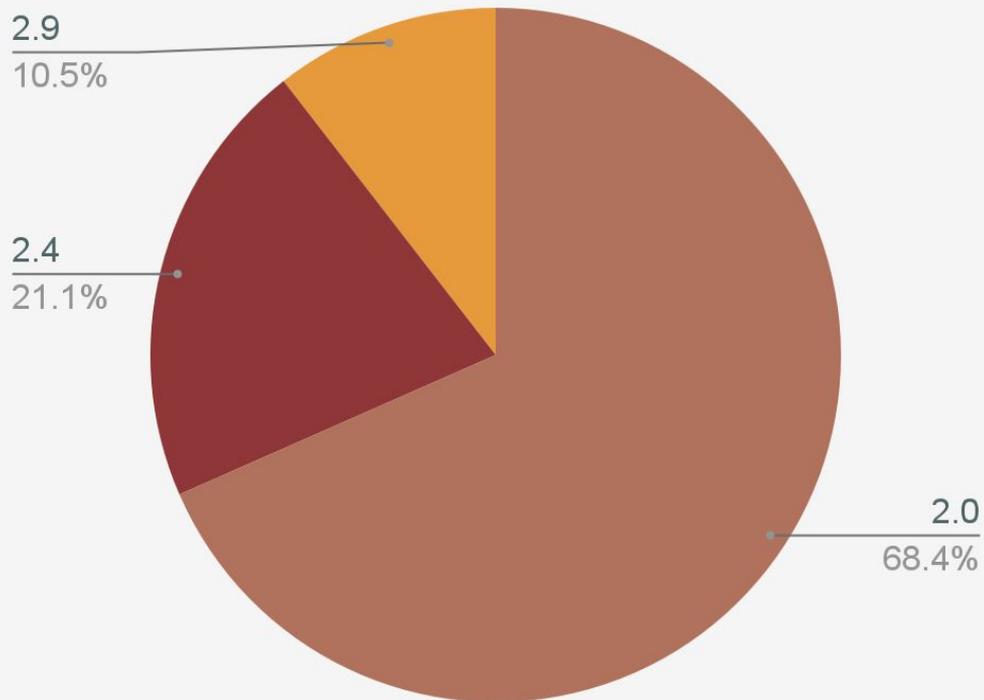
## 아쉬웠던 것

- 조합비 증액 여부와 같이 쟁점 있는 사안에 대해 차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논의할 수 있는 과정과 장을 촘촘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잘했음
- 몰라용.

# 참여하고 싶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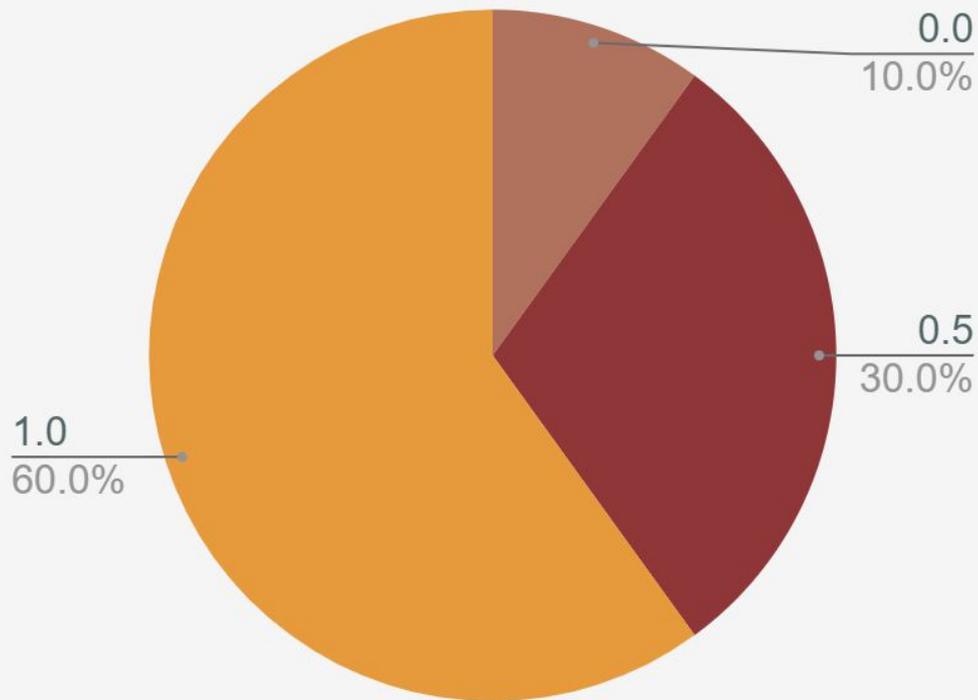


# 출자지지금 배당율



배당율	사람수
2.0%	13 명
2.4%	4 명
2.9%	2 명
총계	19 명
평균	2.18%

# 출자지지금으로 기부하기



찬성 1, 반대 0	사람수
반대 (0점)	2 명
기타 (0.5점)	6 명
찬성 (1점)	12 명
총계	20 명
평균	0.75 점

# 나와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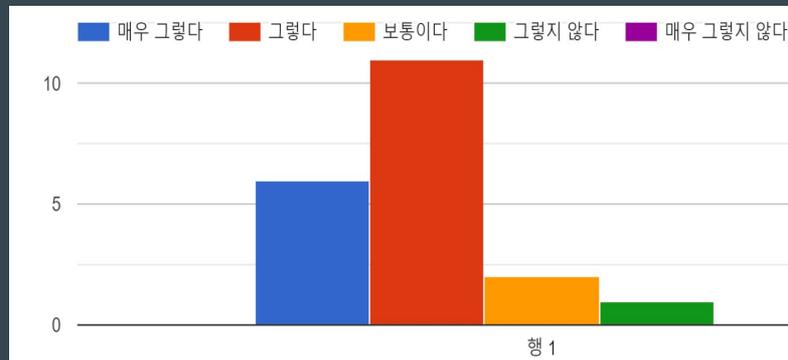
2023 총회



사회의 변화



2024 총회



# 빈고가 만든 변화 1

- 빈고는 자본, 화폐의 다른/새로운 사용법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유지해왔고, 그 가치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기보다는 의의와 가치네요;)
-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 힘들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많이 회복되었음
- 현재 관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소속 공동체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의미있음
- 기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을 벗어날 방도 마련
- 여러사람을 만날수있어 힐링되는 순간들이 저를 즐겁게 변화시켰어요:)
- 멍때리다가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고민하고
- 선택해게 해줍니다.

# 빈고가 만든 변화 2

- 덕분에 협동조합 활동이라든가 단체활동 중에 지치더라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달라지고 있는지는 더 오래봐야겠지요.
-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 나눔과 대안적 삶의 실천
-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본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 사적 소유를 당연시 하는 현 시대에서 조금은 다른 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금융의 실험

# 빈고가 만든 변화 3

- 본격적으로 돈을 번지 6년차되는데 내가 버는 돈의 의미, 목적, 사용처에 대해 눈을 뜨고 살펴보게 되었음. (눈뜨고 회사가고 일하고 밥먹고 집에오고 필요하거나 혹은 갖고싶은 걸 사고 - 이런 기계적인 반복에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나를 보게 됨) 계획을 세워보려는 의지를 갖게 됨. 그런 계획자체가 삶의 계획이기 때문에 빈고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됨.
- 빈고 핸드북을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다른 생각을 하게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빈고 이용을 통해 제 삶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에 소소한 행복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자의 의미를 두고 또 다른 빈고 이용자가 삶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 아임그루트, 나는 이미 공공재다.ㄷㄷ 뚝뚝~
- 삶에서 나온 이상과 작은 움직임이 주는 생동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 연대 활동

- 올해 제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가 청소년 쉼터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금 펀딩에 빈고가 함께 연대했으면 합니다. 따로또같이 공동체통장에 보관중인 출자금을 비롯해 개인적으로도 펀딩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인권센터건축계와 같은 공동펀딩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 타 공동체와 관계맺기
- 행복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당.

# 운영활동

- 타 공동체와 관계 만들기
- 건물 매입, 보증금 등의 사유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은 단체들과 접촉해 보았으면 합니다.
- 운영활동가 중 빈고 재정관리를 배울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 재정을 다루어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운영에 대한 관점도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행복하장.

# 이용활동

- 거주중인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분 및 보증금-임차료 상호전환에 필요한 83만빈
- 현재 계획은 없음
- 상반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 계획이 있어 이용 가능 금액 상담 예정입니다
- 계획 없음
- 아직요. 아직 올해 계획은 안개 속에~
-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면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 조합비

- 연 2만빈(100% 증액)
- - 빈고의 규모와 활동을 고려할 때 연 1만빈은 비현실적으로 적게 책정된 금액이며, 최소금액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2만빈으로 인상
- 2만원? 더 올려도 좋음. 무급은 활동의지와 역량을 감소시킴
-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이 필요함
- 조합비 및 인건비 인상은 찬성
- 최소 금액을 월 천빈으로 증액하고, 원하는 조합원이 편하게 조합비를 증액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적절하다 기준을 모르겠어요ㅠ
- 2만빈 이상. 의미와 힘이 함께 가야지 싶습니다.
- 문턱이 너무 높지는 않으면 하지만 의지를 담기에 3만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동가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필요해 보입니다.
- 네 인상해야죠. 1만5천~2만?
- 1만5천빈~2만빈 / 큰 폭으로 인상되면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월 1만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단체 후원이나 회비를 그 정도는 내고 참여하지 싶은데요.
- 빈고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는 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 물론 형편상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테라 이부분에 대한 살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월 2만빈/기존 1만빈에서 추가된 1만빈 전체는 인건비용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다른 회원들의 상황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1-2만빈 사이에서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 상황을 몰라 구체적인 답은 어렵지만 올라야 할 것 같아요. 적절한 임금 보장이 가능한 선에서요.
- 금액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적절한 조합원비를 올려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 1만 7천5백빈. 2만빈은 약간의 저항감이 들어서요. 그치만 2만빈도 좋아요.
- 총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활동가 업무형태 인건비

- 상임활동가가 원하는 업무형태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현재로서는 원격 또는 재택 근무와 같이 다른 활동 또는 일과 병행할 수 있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재정관리, 조직활동 및 조합원관리 등 최소 2개 부문을 각각 담당하는 상임활동가가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업무량 대비 인건비는 상임활동가의 총 소득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편성된 예산규모만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함.
- 반상근 자율근무
- 업무형식(시간 포함)이야 좀 자유로워도 좋을듯 / 실적이라긴 그렇고 눈에 보이는 활동기록이 공유됨 좋을듯 / 인건비를 포함한 빙고 운영 활동비 자체를 늘리고 부족분을 후원금 형식으로 모아도 좋을듯함 / 다른 활동단체들 처럼 후원회비를 받아도 좋을듯
- 반자본 운동단체로 기능하게 하려면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테고, 은행으로서의 기능 정도라면 지금 하는 정도도 되려나 싶고요.
- 조합원을 더 만들고, 규모도 키우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현재의 흐름들에 대해 입장을 내는 활동들을 펼쳐야 할텐데.
- 여튼 지금 하는 정도의 은행기능 + 재정담당 후임 교육 정도만 해도 지금보다는 활동비가 조금 늘어나면 좋겠네요.
- 근데 조합원들은 실무자의 활동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려나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 활동가가 각자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보기가 있었으면
- 상황을 몰라 답하기 어렵네요.. 파트타임으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근무 시간 선에서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보장받아해 할 것 같아요.
- 실무자가 받고 싶은 금액을 알리고 그 금액을 받는 방식 어떻게요?  
업무계획 세우기 등 자신의 임금기준을 정해 빙고에 제안하는 거요^^ 역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 자세히 적긴 힘들지만 사무직 정규직으로 1명이라도 상근, 4대보험 등을 적절히 적용받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네 당연히 올려알텐데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감이 안잡혀요.
- 빙고를 잘 몰라서 답을 할 수 없음.
-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의견 내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총회에서 이야기가 잘 풀어지길 바랍니다.
- 총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음.....최저시급으로 받고있어요
- 상근.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이상.
- 실무자에게 적절한 임금은....어렵네요. 빙고 실무자는 어떤 업무를 해야할까라는 질문이 앞서기도 하고. 업무형태야 가능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 후원행사

- 무의미한 시도라고 생각지는 않으나, 인건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일회적 방식의 인건비 재원 마련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봄
- 지속성이 필요함~ 행사도 하면 재미있을듯하지만 품에 비해 소득이 적을수도..
- 전 좋아용
- 무조건!
- 행사 기획하시고 준비하실 분들이 재미있다면 행사때 참여할 의사는 있어요.
- 실질적인 모금액은 그때 후원조직을 하시거나 후원금을 따로 모으시는게 나으실수도 있지만요^^
- 좋습니다
- 후원행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활동가들의 활동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좋습니다.
- 후원 행사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려고 합니다.

# 수익사업

- 조합비, 이용활동 외에 수입이 발생하는 다른 활동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 좋음(아이디어는 없음)
- 수익사업이 정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 수익사업 찬성해요
- 빈고당근마켓

# 하고 싶은 말 1

- 서로에게 상냥하고 다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저도 더 상냥하고 다정한 동료가 되고 싶고, 노력할게요..
- 감사합니다~
- 활동가분들 힘내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셈
- 2024년도 화이팅 입니봐!
- 더 잘 살아갑시다!
-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는 조직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 온오프로 자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냥 별일없어요~
-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화이팅!

# 하고 싶은 말 2

- 개인적으로는 긴 시간에 걸쳐 반환을 마무리했던 2023년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기다려주셔서 고마와요 빈고!
- 2024년도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하는 한해를 만들어요.
- 올 한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 직접 마주하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함께 하기에 정말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빈고가 유지되고 확장되길 기원합니다!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올한해 빈고에 축복을!
- 늘 주시는 환대에 감사합니다.
- 매년 이맘때면 올해는 유령조합원에서 벗어나야지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올해는 조금씩 빈고 활동에 스며들어 보겠습니다 🙏
- May the common be with us all!

# 2023 빈고 어워드



출자활동상

이용활동상

연대활동상

운영활동상

공동체 활동상



# 출자활동상



가비	개굴	겨리	고영희둘	고집사	권다윤	금산재단	김김정현	김삼권	김상국
김완	나마스떼	날맹	노래	다옹	담묵	디디	마시멜로	멍구	몽애
민하	박빛단	반달	반디	반바지	백련	비루	살구	소희	숲이아
알록	오재미	온	우중산책	유마	유선	윤영광	윤집사	윤티	이건희
이수희	이유지현	이파람	일농	임명희	잔잔	지음	짱돌	찬	철수
최곰	최소연	최송	최효정	카라	카오모	크트	테아	햄	현정
홍성훈	희야								



# 연대 활동상



반바지	부깽	설해	아침	우중산책	제제				
-----	----	----	----	------	----	--	--	--	--



# 공동체 활동상



고집사	광대	몽애	반바지	비루	살구	수수	알록	양군	옥수수
유마	유선	유집사	윤집사	이름	이수희	자유	재아	정훈	지각생
지음	천피터	청하	켄짱	편범삼	햄	현영			

# 2023 빈고 어워드

활동상	수상자 수
출자활동상	62 명
이용활동상	42 명
운영활동상	31 명
연대활동상	6 명
공동체활동상	27 명
총계	109 명

구분	수상자 수	어워드 수
5 관왕	1 명	5 개
4 관왕	3 명	12 개
3 관왕	12 명	36 개
2 관왕	22 명	44 개
1 관왕	72 명	71 개
총계	110 명	168 개

# 2부 : 본회의

- 개회선언
- 2023 활동평가
- 2024 활동계획
- 기타 안건

# 총회 성원 확인

전체 조합원	462 명	참석률
전체 의결권	184 명	65.2%
참석	28 명	
위임	92 명	

# 개회 선언

- 의사일정 확정
- 서기 선임
- 안건 채택
- 전년도 회의록 승인

# 2023 활동평가

- 제1호 안건 : 2023년도 활동보고 및 평가
- 제2호 안건 :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
- 제3호 안건 : 2023년도 감사보고

# 결산 : 공유상태표

공유지(좌변)				공유자(우변)			
구분	전기(2022)	당기(2023)	당기/전기	구분	전기(2022)	당기(2023)	당기/전기
자산 총액	530,665,549	503,906,255	95%	부채+자본 총액	530,665,549	503,906,255	95%
현금 및 예치금	85,820,549	204,746,255	239%	출자금	359,927,892	309,242,537	86%
공동체출자	17,000,000	17,000,000	100%	적립금	97,769,510	105,276,009	108%
공동체공간	345,660,000	212,220,000	61%	공통장	51,337,567	55,755,493	109%
공동체활동	35,540,000	29,880,000	84%	공통계	2,747,015	9,847,167	358%
공동체회원	10,890,000	10,890,000	100%	차입금	10,000,000	10,000,000	100%
조합원이용	31,185,000	29,170,000	94%	당기잉여금	8,883,565	13,785,049	155%

# 결산 : 운영성과표

지출				수입			
구분	전기(2022)	당기(2023)	당기/전기	구분	전기(2022)	당기(2023)	당기/전기
지출 총액	11,924,887	12,005,220	101%	수입 총액	20,808,452	25,790,269	124%
운영비	446,850	1,028,770	230%	분담금(공동체)	15,468,148	16,000,315	103%
활동비	10,052,000	9,245,000	92%	분담금(조합원)	311,836	1,739,060	558%
회의비	776,010	960,000	124%	활동수입	930,000	1,140,320	123%
사업비	104,000	471,450	453%	조합비	2,050,000	2,050,000	100%
이자비용	546,027	300,000	55%	선물	937,461	697,888	74%
기타지출	-	-	0%	이자수입	1,111,007	3,694,686	333%
당기잉여금	8,883,565	13,785,049	155%	기타수입	-	468,000	0%

# 잉여금처분안

## 당기(2023) 잉여금 분배안

잉여금총액	13,785,049 빈	100.0%	전기 대비 <b>155%</b>
출자지지금	9,502,461 빈	68.9%	출자금의 2.9% 적립(전기 +0.9%P)
지구분담금	1,400,000 빈	10.2%	10% 이상
이용지지금	1,400,000 빈	10.2%	10% 이상
빈고적립금	1,382,588 빈	10.0%	20% 이상이지만 10%로 적립
활동가기금	100,000 빈	0.7%	

# 감사 보고서

감사 : 햄, 등대

# 2024 활동계획

- 제4호 안건 : 2024년도 조직 및 임원구성
- 제5호 안건 : 2024년도 활동계획
- 제6호 안건 : 2024년도 예산 및 공유지운영
- 기타안건

# 15기 활동가 후보

- 대표활동가 : 정훈
- 운영활동가
  - 계속 : 반바지, 산초, 설해, 온, 이파람, 잔잔, 하지메
  - 신규 : 쌤쌤, 양군, 지각생
- 책임활동가 : 지음, 유선, 부깽
- 갈등탕비실 : 아침, 온, 배꼽냄새
- 감사 : 하루, 바다

# 15기 활동계획



# 15기 공유지 계획

- 공유오피스, 창고 > 교육, 정비 등의 활용
- 공유지 박람회
- 온라인 공유
- 빈집 활용
- 공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고민 필요
- 각자가 가진 것들, 능력들에 어떤 것이 있는가? 활동으로 연결
-

# 소식공유

# 기념사진 촬영

# 건강보험계

거대 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에 가입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보험 하나 없이 살자니 매일매일이 불안하시다고요? 빈고에는 건강 보험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계에 매달 계비를 내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면 깃돈으로 치료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계비는 매달 꼬박꼬박 냈지만 너무 건강해서 깃돈을 타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의 계비덕에 많은 계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도 건강하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상부상조의 정신이 스며든 계모임과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이 두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진 건강보험계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빈고로 문의주세요!

뒷풀이

수고하셨습니다